공공보육 인프라 지원‘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이현종(왼쪽에서 여섯 번째) 철원군수와 하나은행 정철(왼쪽에서 일곱 번째) 동부영업본부 지역대표가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7일 강원도 철원군과 함께 지역 내 민관협력으로 건립한 ‘국공립 새롬하나어린이집’ 개원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국공립 새롬하나어린이집은 하나금융이 저출생 문제 극복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추진 중인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의 87번째 완공 어린이집이다.이번 어린이집은 약 30년 전에 건립된 노후화된 건물로 안전 문제, 보육실 부족, 신규 시설 설치비 부족 등 어려움을 겪었다. 2021년 하나금융의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선정돼 이번에 양질의 신축 어린이집으로 재탄생했다.이 어린이집은 연면적 700㎡, 지상 2층 규모로 총 96명의 영유아를 수용할 수 있다. 친환경·방염 제품을 사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보육실 6개를 비롯한 다목적 유희실, 야외놀이터 등 아이들이 여러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됐다.이날 개원식 행사에는 이현종 철원군수와 하나은행 정철 동부영업본부 지역대표 등이 참석해 어린이집 시설과 내외부 공간 곳곳을 둘러보며, 입소 아동들을 축하하고 보육교사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정 지역대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